

소수자의 자기 존중 교육 방안\*  
-다수자 관점의 '관용'에서 소수자 관점의 '자기 이해'로-

황정숙  
인천국제고등학교

Self-respect Character Education for Minority Students  
: From 'Tolerance' by the Majority to 'Self-comprehension' by the  
Minority

Hwang, Jung-suk \*\*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3 2016  
Revised Sep 23 2016  
Accepted Sep 28 2016

Keywords:

identity, self-respect,  
being-for-others,  
tolerance education,  
self-comprehension education

주제어:

정체성, 자기 존중, 대타  
존재, 관용 교육, 자기이  
해 교육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self-comprehension as an alternative to tolerance in order for social minority students to gain self-respect.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eyes' that see me as a social minority and examines how this affects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a subjective self (I) and an objective self (Me). If one is caught up in the 'I', the person is likely to be self-centered. In contrast, if someone is caught up in the 'Me', the person is likely to be nervous and anxious about how others see him/her. The latter form of self is usually seen in the social minorities, and J. P. Sartre called this kind of person 'Being-for-Others'. Then, how can we convince them to respect themselves even when society views them negatively? Currently multicultural education is focused on the majorities' tolerance, but this is not appropriate to foster self-respect in minorities. It is in the process of self-comprehension that the minority can face their identity and finally respect themselves as beings who have their own eyes and life storie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에 중점을 두고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하에 놓인 소수자가 자기 존중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체로서의 자아(I)와 객체로서의 자아(Me)를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자기의식의 주체와 상태에 따라 소수자의 정체성을 구분하였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매몰된 대타 존재의 문제에 주목하여, 현재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수자 관점의 관용 교육이 이러한 대타 존재의 자기 존중에 적절하지 않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서 소수자 관점의 자기이해 교육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60차 학술대회(2016.6.25.)에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원고를 발전시킬 기회를 주신 학회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Corresponding author, lavena@hanmail.net

## I. 서론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는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minority group)<sup>1)</sup>에 속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견해, 열등 의식, 무력감, 죄책감을 갖기 쉽다(천호성, 박계숙, 2012: 437).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존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적 방법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스스로가'라는 주어에 담겨 있다. 미드(G. H. Mead)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지만 정체성을 의식하고 형성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를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그렇게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관계없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외부의 시선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중점을 두고 그들이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수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안은 관점의 주체에 따라 다수자 중심의 '관용'과 소수자 중심의 '자기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에서는 다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용 교육에 중점을 둬으로써 소수자의 정체성 존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

1) 여기에서 소수자는 양적인 면에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음의 네 가지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첫째, 식별 가능성으로, 소수자는 신체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소수자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이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들이다. 셋째,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넷째, 집단의식(소속의식)으로, 위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더라도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그는 단순히 차별받는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개인이 아닌 소수자가 된다(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 윤인진, 2000: 404 ; 박경태, 2008: 12-15).

다. 물론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관용의 방식만으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소수자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관용의 논리 속에서 소수자는 관용을 받는 수동적인 객체에 머물게 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사회의 평가와 시선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소수자의 정체성 존중의 주체는 소수자 스스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수자 중심의 관용 교육을 넘어서 소수자 중심의 자기 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존중은 종합적인 '자기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소수자는 타인의 관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이해와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될 때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대등한 '주체와 주체'로서 타자인 다수자, 또 다른 소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부러움, 무시, 저항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드(G. H. Mead)의 자아에 대한 논의, 사르트르(J. P. Sartre)와 헤겔(G. W. F. Hegel)의 존재론에 기초하여 소수자의 정체성을 구분하고(2장), 다수자 관점의 관용교육이 소수자의 자기 존중에 갖는 한계를 밝힌 뒤(3장), 소수자들이 진정한 자기 존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4장).

## II. 시선의 주체와 소수자의 정체성

### A. 나를 보는 시선의 주체에 따른 존재 양식

우리는 흔히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그것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객관화, 대상화하여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드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갖는 의미를 자신 속에 환기시키는 능력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자신의 상호작용 상대자의 사회적 행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상(象)을 획득하고 정체성에 대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Mead, 1980: 238 ; Honneth, 2011: 150).

미드는 자아를 '객체로서의 자아(Me)'와 '주체로서의 자아(I)'로 구분하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봉진, 2011: 156). '객체로서의 자아(Me)'는 타인이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므로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주체로서의 자아(I)'는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자신을 의식(Me)하는 것에 앞서 존재하며, 모든 행위의 원천이자 창조성과 개성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가 상호작용을 지속함으로써 '완성된 자아(complete self)' 혹은 '통일된 자아(unified self)'로 나아가는 것이다(성경희, 2012: 64).

그러나 주체로서의 나(I)와 객체로서의 나(Me)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I'에 매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고, 'Me'에 매몰된 사람은 본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 욕구 등에는 관심 없이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과 나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의식하는 것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타인의 눈을 빌려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을 의식하는 주체는 '나' 자신<sup>2)</sup>이고, 새로운 주체로서의 나(I)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 자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나'를 잃지 않을 때, 미드가 말한 자아의 완성과 통일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타인의 눈을 빌려서 나를 보는 것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의식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장점과 동시에 타인의 시선 하에 갇혀버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주체로서의 자아(I)를 상실한 채 객체로서의 자아(Me)만 남아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의 자기 정체성 존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는 대상이므로, 타인의 시선에 갇혀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 아래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는 사람을 '대타 존재

2) 이 때의 '나'를 최초의 주체로서의 나(I)와 구별하여 성찰적 자아(Reflective-I)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I는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은 행위의 주체이며, Me를 통해서 자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자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Me에 반응하여 새로운 I를 탄생하게 하는 것 역시 성찰적 자아가 있기에 가능하다. 김홍중(2007)에 따르면, 성찰성의 주체는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를 인식, 판단, 지각의 대상으로 전유하는 시선의 분리를 요구하며, 성찰적 행위는 '시선에 대한 시선', '재현에 대한 재현', '성찰에 대한 성찰'과 같은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구조를 갖는다. 또한 물질적 직접성에 함몰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초연한 의식을 유지하는 주체,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무사심한 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주체, 또한 경험적 자아를 구속하는 도덕적 권위에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윤리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l'être-pour-autrui)'로 규정하며 그 특징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대타 존재는 헤겔의 '즉자'와 '대자'라는 존재 양식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즉자(an sich ; in itself)'는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주관적이고 고립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자적 존재로서 인간은 미드의 'I'에 매몰된 사람과 유사하다. 그는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며, 마치 동물이나 사물이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도 없다.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자기 성찰이나 고뇌, 회의가 없으며,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의 시선에 관계없이 행동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즉자 존재는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로서(변광배, 2005: 152)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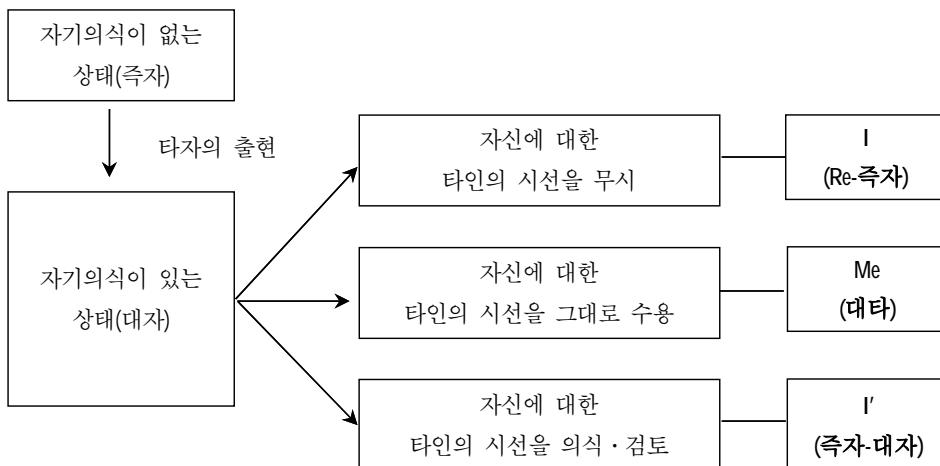
반면 '대자(für sich ; for itself)'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을 의미하며, 헤겔에 따르면 이는 '자기의식'이 출현하는 상태이다(Jean Hyppolite, 2009: 19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자기 자신까지도 거리를 두어 관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자 존재는 나 혼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드에게 상호작용의 상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자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낯선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 타자의 시선과 낯설음을 통해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과 사유의 측면에서는 즉자 존재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칫 시선의 주체로서의 자리와 권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남의 눈에 비치는 존재, 즉 객체화된 사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는 'I'가 'Me'와의 거리감을 상실하고 'Me'를 내면화함으로써 'Me'에 매몰된 상태와 유사하다. 사르트르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대타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 경우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전전긍긍하면서 남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대타 존재로서 그는 외부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타자의 판단에 자신을 내던지며, 그 결과 대자로서 갖는 '거리 두기'라는 긍정적 측면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즉자로서 충만했던 만족감이나 행복감도 얻지 못하는 이중의 비극에 빠진다.

사르트르는 나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중점을 두고 타자의 존재 문제를 다루었으며, 타자의 눈에 내가 비친다는 사실에 의해 그 때까지 내가 중심이던 세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객체화시키면서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갈등과 투쟁으로 귀착된다(변광배, 2005: 189). 이렇게 본다면 복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극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타자는 나를 의식하게 하는 매개자이자 나의 존재 근거로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타자성을 의식하면서도 이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 B. 존재 양식에 따른 소수자의 정체성 구분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는 대자 존재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시선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대타 존재로 전락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르트르와 헤겔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의식의 유무와 존재 양식에 따라 <표 1>과 같이 소수자의 정체성을 구분하였다. 우선 즉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소수자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인식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차별받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타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동시에 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러한 상태는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뿐이다.

<표 1> Identity based on Self-Consciousness and Mode of Being



대자 단계에 들어선 소수자는 타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며, 그와는 다른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드가 말한 '객체로서의 자아'를 의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소수자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므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내적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대자 단계에 있는 소수자는 아직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의식하는 상태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계는 비단 소수자만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누구나 거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대자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문제는 타자를 의식한 이후에 발생한다. 타자를 의식한 소수자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원래의 즉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Re-즉자'<sup>3)</sup> 경우, 둘째, 타인의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타 존재가 되는 경우, 셋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즉자-대자적 존재가 되는 경우이다. 첫째 유형이 자기중심적인 존재(I)가 된다면, 둘째 유형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긍정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여지는 대상, 즉 사물화된 객체(Me)로만 남게 된다. 그는 사회적 시선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시선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가 정당한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회의 시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남의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므로 '거리 두기'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기의식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즉자 존재로서 누리던 충만함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대타 상태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므로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대가로 얻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즉 객체로서의 자아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그러한 시선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의식하는 셋째 유형의 사람은 사회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을 부정하지도, 사회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을 긍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남의 눈에 비쳐진 자신을 의식하므로 사물화, 객체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을 객체의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객체화하는 시선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주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사람은 대자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즉자성을 버리지 않고, 타자와의 만남을 자기 자신(I)을 새롭게 발견하고 탄생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이는 헤겔과 사르트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던 '즉자-대자(an und für sich)' 상태에 가깝다. 이 세 유형을 중심으로 소수자의 정체성 변화를 <표 2>와 같이 '즉자(정)' → '대자(반)' → '즉자-대자(합)'이라는 변증법적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들은 타자를 의식하였지만, 타자의 시선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에게 매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타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최초의 즉자 상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Re-즉자'라고 표기하였다.

〈표 2〉 Changes in Minority's Identity based on Dialectic

존재 양식	타자(다수집단)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반응	특징
즉자 (정)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적 태도에 기분이 나쁘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며, 스스로 소수자라는 의식이 없음.	타자의 존재와 관점에 대한 의식이 부재하며 자기 자신에게 매몰 (자기의식이 없는 상태)
대자 (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외부의 시선을 의식함.	타자의 존재와 시선을 의식 (자기의식)
*대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게 됨.	타자의 존재와 관점에 매몰 (자기의식이 있었다가 없어진 상태)
즉자-대자 (합)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이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성찰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 둘을 통합함.	타자의 존재와 관점을 의식하되, 그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형성해 나감(지속적으로 자기를 의식하면서 변화해 감)

### Ⅲ. 다수자 관점의 관용 교육이 갖는 한계

우리는 흔히 "...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할 때 존중받는 대상과 존중하는 주체를 분리하여 생각한다. 소수자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수자를 존중받는 대상의 위치에 놓고,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다수자 중심의 관용 교육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역시 다수자가 소수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을 관용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요한 요소로 택하고 있다. '관용'은 소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이나 생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신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를 '참고 견디는' 태도, 적극적으로는 차별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포함한다.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용적 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진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나 갓난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그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 교육은 소수자의 자기 존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권력 조건, 반대, 용인'이라는, 관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Carter, 2013: 1 ; 이상인, 2014: 75)를 중심으로 관용이 소수자의 자기 존중 방법으로서 부적합한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 A. 대타화되는 소수자

'관용'은 행위의 주체가 다수자이며, 소수자는 일방적으로 관용을 받는 대상,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자가 자기 존중에 이르는 데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다. 관용은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용은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그 속에는 관용받는 사람과 관용하는 사람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누가 관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소수자는 관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관용을 받는 객체라는 것을, 다수자의 눈에 비친 참고 견뎌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용받는 과정에서 소수자는 자신이 소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므로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와 소수 간의 '구분 짓기'가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다수자에게 있어서 관용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며 관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체인 다수자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수자로서는 그들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르트르 역시 『존재와 무(1943)』에서 비슷한 이유로 관용을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았다. 그는 '준다'는 행위를 타인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행위라고 보며, 타자가 이것을 수용하게 될 경우 나에 의해 객체화될 수밖에 없다(Sartre, 1992: 416-417 ; 변광배, 2005: 267)고 설명하면서 증여와 관용에 담긴 힘과 소유의 관계를 강조했다.

결국 다수자 관점에서 설계된 관용 교육에서 소수자는 일방적으로 관용을 받아야 하는 존재, 관용하는 다수의 눈에 비치는 'Me'로서만 남기 때문에 대타화될 위험이 크다. 설령 관용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기 존중의 근원이자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자의 관용적 태도로 인해 얻게 되는 인정과 자기 긍정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용 교육 속에서 소수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며, 대타 존재에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관용 교육은 소수자의 자기 존중의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 B. 관용 대상인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우리가 무언가를 또는 어떤 사람을 '관용한다.'는 말 속에는 관용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관용'은 'tolerantia'라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 속에는 '참다(bear), 견디다(endure)'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종교 갈등이 심했던 16세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서구 사회에서 관용은 약자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 '보기 싫은 존재'에 대한 '체념적 용인'에서 출발했던 것이다(Walzer, 2004: 27).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소수자의 자기 존중에 왜 문제가 되는가? 어차피 소수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을 받는 존재임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어쩌면 관용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부정적인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덜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사라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존중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인데 관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부정하게 하는 문제(관용의 역설)를 낳을 수 있고, 소수자에게는 억지로 참아주는 듯한 다수자의 태도로 인해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억압과 간섭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관용이나 암묵적 무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용에 대한 강조는 자칫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다." 라는 식의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변질되어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론 자신의 신념과 가치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살펴 보게 될 무관심의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 C. 무관심한 용인으로 인한 존중의 결여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를 내는 사람과, 대충 무성의하게 듣고 자신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믿는다니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둘 중에서 누가 나를 더 존중한다고 생각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태도에 더욱 기분 나빠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적어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내 이야기가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었던 것이고, 나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

자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느낌, 너와 나는 별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억압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싫어하는 대상을 용인해야 하는 관용은 상대방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존중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무관심과 무시는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타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보편적인 권리에 호소함으로써 관용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호소하여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소수자이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가 가진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그러한 태도는 ‘인간’, ‘시민’과 같이 우리가 가진 동일성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관용하는 것일 뿐,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적인 논의에서 제외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아무리 억압이 없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 할지라도 이런 태도가 과연 소수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용은 다수자가 소수자를 존중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소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기 존중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관용의 주체는 다수자이고, 소수자는 관용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관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수자가 자신에게 취하는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타적 성향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 이해, 상호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관용은 소수자에게는 무시, 다수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쩌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관용 여부는 소수자의 자기 존중에 그리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결국에 관용하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이는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고민은 다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수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IV. 소수자 관점의 자기이해 교육

우리는 흔히 '자기이해'라고 하면 심리학의 문제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아실현은 불가능하며, 자기 존중이 결여된 타인 존중은 자칫 맹목적인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적인 태도와는 구별되며,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가능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리코르(P. Ricoeur)의 '자기이해'<sup>4)</sup> 개념에 기초하여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이해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뒤, 이것이 소수자로 하여금 대타 존재에서 벗어나 즉자-대자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에 이르게 함을 보여줄 것이다.

### A. 자기이해의 의미와 과정

자기이해와 자기 존중의 윤리를 추구했던 리코르는 『타자로서 자기 자신(1990)』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프랑스어 3인칭 '자기(soi)'로 답한다(이서영, 2014: 54). 여기에서 '자기'는 미드의 목적적 나(Me)와 같이 스스로를 대상화함으로써 의식하게 되는 자신을 의미한다. 이 '자기'는 고정된 존재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알아야 할 대상이자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결국 자기이해는 스스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리코르는 자체성(idem)과 자기성(ipse)을 구분하며<sup>5)</sup>, 이 둘 간의 보완적 변증법, 즉 '자기'와 '자기 아닌 타자'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자기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자체성'은 즉자 존재, '자기성'은 대자 존재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국 이 둘 간의 변증

4) 이서영(2004: 52)에 따르면, "리코르의 자기 이해는 프랑스어로는 soi-meme comprehension 인데 반해, 영어로는 대부분 self-understanding으로 표현되어 있다. understand의 어원은 '아래에 + 서다'라는 것으로, 누군가의 아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의 위치를 심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위치는 하나의 관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바라보도록 만든다. 반면에, 같은 '이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comprehension은 대상에 대한 시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comprehension의 어원은 '함께 + 쥐다'라는 뜻으로 사물을 손에 쥐는 것처럼 특정 주제를 둘러싼 모든 관점들과 한계를 통해 내부마져 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self-comprehension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5) 변광배(2005: 152)에 따르면 자체성은 '동일한(identique,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성'은 '그 자체, 자신(même, self)'의 의미를 갖는다. 리코르는 자체성을 자체 동일성(identité-idem)으로, 자기성을 자기 동일성(identité-ipse)로 구분하였다(P. Ricoeur, 2006: 15-16) 그리고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체 동일성은 즉자 존재, 자기 동일성은 대자 존재의 의미로 사용된다.

법적 순환은 즉자-대자 존재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Ricoeur's Triple Mimesis and the Process of Self-Comprehension <sup>6)</sup>

미메시스의 단계	특징	자기이해의 과정	존재 양식
미메시스 I	텍스트나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알고 있거나 그것에 의해서 행위하는 상태 (전형상화: pre-figuration)	이야기되기 이전의 행동을 의미를 이해하고 자 함 (자기 삶과 행위에 대한 '전(前)이해' 단계)	즉자
미메시스 II	텍스트나 이야기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상태 (형상화: figuration)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형성 (‘이해’ 단계)	대자
미메시스 III	미메시스 II의 과정에 의해 사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형성되는 과정, 그러한 마음 상태가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상태 (재형상화: re-figuration)	텍스트나 이야기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미메시스 II에 의해 상상의 변주와 의미론적 혁신이 온전하게 발휘되어 사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며, 이 안목을 통해 자아를 파악 (‘자기이해’ 단계)	즉자-대자

리코르르 는 이렇게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 ‘나는 무엇인가(Me)라는 질문과 ‘나는 누구인가(I)라는 질문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적 정체성(윤성우, 2003: 198-200; 공병혜, 2005: 63)이라고 말하며, ‘3중의 미메시스(미메시스 I, II, III)’라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자기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표 3>과 같이 제시한다. 3중의 미메시스 단계를 통해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은 ‘즉자’와 ‘대자’의 변증법을 거쳐 ‘즉자-대자’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야기가 구성되기 전, 개별적인 사건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하는 미메시스 I 은 아직 성찰적 자아가 작동하기 전, 자신을 타자화하지 못함으로써 ‘Me’를 의식하지 못하는 ‘즉자’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자가 창조성과 개별성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미메시스 I 역시 의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의미의 망으로서, 미메시스 I 이 없다면 의미도, 행동도, 해석도 불가능하다(이대성, 2009: 106). 자기를 둘러싼 사건과 상황을 배치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미메시스 II는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즉 성찰적 자아가 작동할 때만 가능하므로 ‘대자’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메시스 III은 온전히 구현된 미메시스 II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안목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이에 따라 행동과 실천이 변화하는 상태이므로,

6) 이재호(2008: 45-60)의 “리코르르 서사해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제시된 3중의 미메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르트르와 헤겔의 존재 양식에 따라 자기이해의 단계를 이와 같이 구분하였다.

대자 존재로서 자신을 보존하면서도 이에 매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구성하는, 끊임없이 성찰적 자아가 작동하는 '즉자-대자' 존재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미메시스Ⅲ은 자기이해에 도달한 상태이지만 이 이해를 통해 결국 자기가 변화하게 되므로 이때의 자기이해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 3종의 미메시스Ⅲ은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앞 단계에 비해 다음 단계가 더 나아간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I이 II보다, II가 III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각각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능 조건으로서 이전의 단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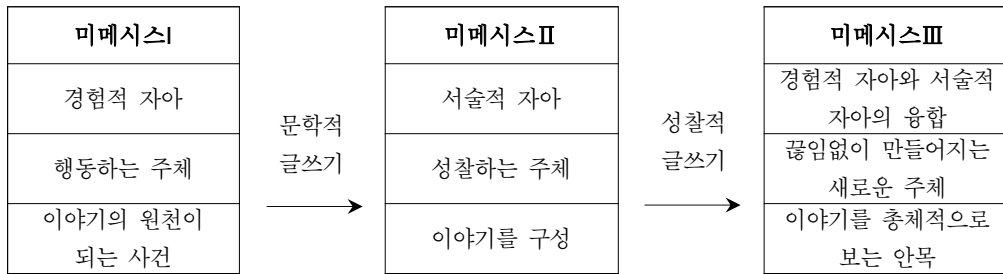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즉자'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Me'를 의식하는 '대자' 존재로서의 자기를 보존하면서도 'Me'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며, 'I'와 'Me'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자는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I'와 'Me'의 상호보완적인 변증법을 통해 새로운 나(I)를 만들어 가게 된다.

## B. 글쓰기를 통한 3종의 미메시스 실현 방안

소수자가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매몰되지 않고, 대자로서 자기를 의식하면서 즉자-대자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자기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메시스Ⅱ의 단계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글, 그림, 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3종의 미메시스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말이나 그림에 비해 글쓰기는 다소 복잡한 내용도 표현해낼 수 있으며, 문자화되어 내 눈 앞에 나타날 경우 글을 쓴 나와 그 글을 읽는 나 사이에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야기를 만들어낸 나를 타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자기이해와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글쓰기의 장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의 방법으로 문학적 글쓰기와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제안하고자 하며, 3종의 미메시스와의 관계를 <표 4>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4〉 Writing and Triple Mimesis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정해진 개념과 법칙 아래 그 의미를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렇게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허구의 이야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낯선 이야기가 적절한 매개체가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서 문학적 글쓰기를 제안한다. 상징과 은유, 상상력 등 문학적 글쓰기의 특성이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는 곧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매몰되어 대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무엇보다 '거리 두기'의 실패, 즉 성찰적 자아의 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 타자의 존재와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발생했던 거리는,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보여지는 나'와 '보는 나'가 일치하게 되고 '보여지는 나'만 남게 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는 없고 타자만 남게 된다. 우리가 대타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존재로서 자기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변화시켜가는 자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I'와 'Me' 사이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미메시스III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미메시스III, 즉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 개인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서술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심리적, 시간적 거리를 두고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성찰하는 글쓰기는 경험을 하는 과거의 나와 현재 서술하는 나의 융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C. 소수자의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 존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이해와 자기존중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존중받을만한 특성이나 업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특성에 따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상인(2014)은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존중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평가적 존중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특징이 없다면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존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일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는 그를 소수자로 만드는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존중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존중관 하에서 소수자가 존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다른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性)소수자이지만 부자라거나, 다문화가정 학생이지만 공부를 잘 한다거나, 장애가 있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땀다거나, 아니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존중은 정작 그 사람이 드러내고 이해받고 싶은, 그 사람을 소수자로 만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쉽게 눈 감고 싶은 바로 그 정체성이다. 평가적 존중관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평가'는 설령 자기 평가라 할지라도 사회적 가치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평가 결과가 존중의 기준이 되는 순간 소수자는 사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는 대타적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평가적 존중 대신 이상인(2014)은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으로 '존재 긍정과 이해'로서의 존중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이해로서의 존중'이란 '한 사람을 독특한 자기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이상인, 2014: 112)를 의미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이해와 존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존중은 그 사람을 우러러 보는 존경과는 다르며,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존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래 '존중(respect)'이란 말은 '바라보다, 다시 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respicere'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에리히 프롬(E. P. Fromm)은 이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독특한 개



성을 인식하는 것,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며 착취가 없는 상태”(Fromm, 1999: 44)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앎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단순히 표면적·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드러난 것 너머를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리콤프의 3중의 미메시스 과정에서 미메시스Ⅲ에 해당하는 상태와 유사하다.

이러한 이해로서의 존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소수자로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전체로서 나라는 사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소수자는 나를 타자로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되 '나(I)'의 고유한 관점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몇 번이고 다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 소수자들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으려면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내맡기지 않아야 하므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자아 및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미드와 사르트르, 헤겔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미드가 말하는 주체로서의 나(I)와 객체로서의 나(Me), 헤겔과 사르트르의 즉자와 대자, 이 둘 중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진정한 자기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거리 두기'에 실패하고 둘 중 어느 하나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특히 소수자들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다수자 중심의 관용 교육은 소수자를 객체화하는 상태

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관용받는 대상으로서 소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수자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소수자가 주체가 되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리콥르의 자기이해 과정을 통해 제시하였다. 끊임없는 자기이해의 과정 속에서 소수자는 'I'와 'Me'를 통합하는 '즉자-대자'로서, 스스로를 고유한 관점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자기 존중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에 대해 자기이해 교육이 이뤄진다면 하더라도 인간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주체로서의 자아(I)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사회의 전통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수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내가 내 것이라고 믿는 관점조차 사실은 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기이해 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이해는 자신의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그 근원을 파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타자로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소수자의 자기 존중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의 주체를 다수자에서 소수자로 바꿈으로써 '관용'이 아니라 '자기이해'를 제안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자칫 이러한 자기이해의 과정에서 다수자가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타적 성향을 띠는 소수자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자기이해와 자기 존중은 소수자뿐 아니라 다수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선의 주체 및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이분화하여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3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방안으로서 '문학적 글쓰기'와 '성찰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은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봉진 (2011).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법철학연구*, 14(1), 155-170.  
 [Ko, B. J. (2011). Bedeutung der Identität bei den modernen Menschenrechten.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14(1), 155-170.]  
 공병혜 (2005). 리콥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61-89.  
 [Kong, B. H. (2005). Ricoeurs Narrative Identität und Bioethik. *Journal of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4,

- 61-89.]
- 김홍중 (2007).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한국사회학**, 41(3), 186-214.  
[Kim, H. J. (2007). The Landscape of Modern Reflexivity and the Allegory of Reflexive Subjec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3), 186-214.]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Park, K. T. (2008). *Minority and Korean society*. Seoul: Humanitas.]
- 변광배 (2005). **존재와 무**. 파주: 살림.  
[Byun, K. B. (2005). *Being and Emptiness*. Paju: Sallim]
- 성경희 (2012). 정체성 구분과 "대위법적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4, 55-78.  
[Sung, K. H. (2012), The Classification of Identity and the "Contrapuntal Multicultural Education".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4, 55-78.]
- 이대성 (2009). **진리에 대한 다학제적 성찰-폴 리콥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출판부.  
[Lee, D. S. (2009). *Multidisciplinary Reflection on Truth- focused on Paul Ricoeur's hermeneutics*. Seoul: Yonsei University.]
- 이상인 (2014).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에 관한 연구 - 평가를 넘어 존재 긍정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Lee, S. I. (2014).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respect for person appropriate in the plural democratic society : the recognition of existence beyond appraisa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이서영 (2014).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적 사회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Lee, S. Y. (2014). *A Humanistic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이재호 (2008). 리콥르 서사해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Lee, J. H. (2008). *Implications of Paul Ricoeur's narrative hermeneutics for moral educ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5-442.  
[Cheon, H. S & Park, G. S. (2012). 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2), 415-442.]
- Axel Honneth (2011). **Kampf um Anerkennung [인정 투쟁]** (Translated into Korean by S. H. Moon & H. J. Lee). Seoul, South Korea: Aprill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Erich Pinchas Fromm (1999).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Translated into Korean by S. I. Kim). Seoul, South Korea: Haseo. (Original work published 1956)
- Jean Hyppolite (2009). **Phénoménologie de l'esprit de Hegel [헤겔의 정신현상학 I]** (Translated into Korean by J. CH. Lee. & S. H. Kim). Seoul, South Korea: Moonye. (Original work published 1947)
- Michael Walzer (2004). **On Toleration [관용에 대하여]** (Translated into Korean by J. W. Song). Seoul, South Korea: Mito.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Paul Ricoeur (2006). **Soi-Même Comme un Autre [타자로서 자기 자신]** (Translated into Korean by W. G. Kim). Seoul, South Korea: Dongmoonse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황정숙(lavena@hanmail.net)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인천국제고등학교 사회 교사로 재직 중임.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수학습방법 및 반성적 판단력이 주요 연구 주제임.

